

남원 요천 통합하천사업 '속도'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광한루원 앞 도로환경 개선 시민공원 조성·교통 등 논의



최경식(왼쪽 첫번째) 시장이 시청에서 열린 '요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꼼꼼한 사업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가 광한루원 앞을 가로 지르며 지나는 요천의 신개발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요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남원시청에서 열린 보고회는 최경식 시장을 비롯해 10개 관계 부서장과 통합하천의 민·관·학 협력을 위해 발족된 '요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거버넌스' 위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요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치수, 이수, 수질, 생태 등 다양한 사업을 지역발전과 연계시키는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이번 용역에는 '광한루원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도 병행 포함됐다.

이 사업은 광한루원 앞 도로 공간을 상시 축제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시에서는 요천과 광한루원 앞 4차선 도로가 단절된 측면을 보완하고자 남원 핵심 거점인 광한루원 주변과 새롭게 개발 중인 합파우 아파트를 연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시는 본 사업을 통해 지역단절 극복, 녹지·여가 공간 창출, 공간의 입체적 활용 등을 구상해 두 거

점 간의 연계성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보고회에서는 요천 통합하천사업의 핵심 친수 시설 사업인 필터가든(수질정화 정원), 승사교 하류 둔치 조성에 따른 시민공원 조성 등 공모사업 안에 대한 현실화 방안과 기술적 검토사항이 논의됐으며 기존 도로의 공원화 사례 분석, 광한루원 앞 도로의 교통처리 방안 등의 설명과 의견개진 등이 이어졌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향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다시 의견을 모아 요천

통합하천사업과 광한루원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의 기본계획을 최종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광한루원 앞 도로와 요천 둔치공간의 공원화를 통해 도심 속 허파와 같은 녹지공간이 시민의 건강한 삶과 풍요로운 생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민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충분히 수렴·검토해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명소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 '전기재해연구센터' 본격 운영

지난달 완공...전기화재 원인 규명·예방책 연구 등

전기화재의 원인 규명하고 예방 대책을 연구하는 '전기재해연구센터'가 정읍에 동지를 틀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최근 정읍에서 '전기재해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과 처·실·임장 등 임직원 60명이 참석한 이날 개소식은 현판 제막식, 케이크 커팅식, 기념식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에 문을 연 전기재해연구센터는 명확한 전기화재의 원인 규명과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 2020년 착공한 이후 지난 7월 완공됐다.

화재연구동, 설비연구동, 감전연구동 3개 동 등 1570㎡(476평) 규모로 조성됐다.

앞으로 화재 감식, 설비 사고 분석, 감전 사고 연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기재해의 사후관리와 사전 예방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게 된다.

특히 전기화재 점유율이 높은 '특별관리품목'을 지정, 관리할 예정이다.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전기재해연구를 위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만큼 전기안전연구와 현장 실증을 통해 전기재해 사전관리 체계 구축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무사·풍년 기원 주민화합 한마당

30일 '삼동 굿놀이 향토축제' 당산제·굿놀이 등

남원시가 오는 30일 보절면 삼동굿놀이광장에서 전통제시 풍속놀이인 '삼동(三童)굿놀이' 향토축제를 진행한다.

남원삼동굿놀이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매년 백중날(음력 7월 15일) 마을의 무사와 풍년 농사를 기원하고 주민화합을 위해 열리는 민속놀이로 이날 행사에서는 당산제를 시작으로 기세배와 당산구, 지내밧기 등의 삼동굿놀이 재연과 주민 화합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삼동굿놀이는 개신마을의 뒷산이 닭의 형상이고 음존마을 앞의 산이 지네형상을 해 마치 닭을 공격하는 형상을 하고 있어 지내밧기를 행함으로써 태어나는 동자들이 입신출세해 부귀영화를 얻는다는 풍수설화에 근거한 민속놀이이다.

출산, 성장, 입신출세까지의 상황이 묘사되는

개 특장인 삼동굿놀이는 잡귀를 쫓아내어 마을의 번영과 주민의 안녕을 빌고, 한해 농사일에 수고한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술과 음식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적 두레놀이 성격을 띠고 있다.

올해로 제39회를 맞이하는 남원 삼동굿놀이는 1982년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지난 2001년에는 지역사회 특성과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바 있다.

소인섭 남원삼동굿놀이보존회 위원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전통문화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 고유 전통놀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장 한국적인 향토 민속놀이 중 하나로 남원삼동굿놀이를 보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고창 아기황새 3형제 이름은 '찬란이·행복이·활력이'

군민 명칭공모 결과 공개

고창에서 자연부화로 태어난 천연기념물 아기황새 3마리의 이름이 '찬란이·행복이·활력이'로 결정됐다.

고창군은 고창 아기황새 3마리 군민 명칭공모 결과를 공개했다. 황새 이름공모는 고창에서 태어난 황새의 이름을 지역과 연관된 단어로 정해, 누구나 쉽게 부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진행됐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6월 태어난 고창 아기황새 3마리는 가락지 번호 A03(부, 군형이)과 A77(모, 지황이)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호남권 최초 황새 자연부화의 성공사례에 해당한다.

황새가족은 당초 공음면 예전리 한 헌전 철타에서 주인에 의해 발견됐으며 이후 고창군은 보호를 위해 부안면에 황새 동자를 마련해 보호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16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고창읍 주민의 '찬란이·행복이·활력이'라는 이름이 1등으로 선정됐다.

아기황새 3마리의 이름은 "찬란하고 행복한 활력이 넘치는 고창이 되기를 기대"하는 의미를 담았다.



인공둥지 안에 나란히 앉아 있는 고창 거주 3마리 아기황새 '찬란이·행복이·활력이'.

천연기념물인 황새는 멸종위기종 1급으로 국내에는 150여 마리의 개체수가 확인되고 있다.

고창군은 어미황새들이 따뜻한 고창에서 월동하는 개체로 파악해 고창거주 황새로서 월동기 먹이활동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찰해 나갈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아기황새 찬란이, 행복이, 활력이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위상을 높이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탐방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4년 연속 '신재생에너지 사업' 선정

태양광 등 건물에 설치해 전기 공급...국비 9억8000만원 확보

정읍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9억8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1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 설비를 일부 지역의 주택, 건물 등에 설치해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모에서 4년 연속 선정된 시는 수성동과 장명동, 내장상동, 시기동, 초산동, 연지동 등 6개 동에 총사업비 21억8000만원을 투입해 태양광 259개소(777kW), 태양열 10개소(136㎡), 지열 8개소(140kW)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읍시는 지금까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비 8277기 2481kW 규모를 설치했다.

그 결과 일반주택 3kW 태양광 발전시설은 가정 전기사용량에 따라 월 4만~5만원 내외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었다.

시는 올해에도 총사업비 31억원 규모로 태양광

386개소(1158kW), 태양열 30개소(306㎡), 지열 15개소(262.5kW)의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비용 절감에 이바지할 계획"이라며 "4년 연속 이어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해 에너지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친환경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